

□특별기고□

21세기 사이버 세계가 열린다

정 호 선*

다가오는 21세기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21세기의 주역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알면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인터넷만으로 살수 있을까?’ 최근 영국에서는 인터넷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67세의 노인을 포함하여 남녀 두 쌍이 목욕가운과 컴퓨터, 신용카드만 지급 받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100시간을 견디는 실험에 들어갔다는 재미있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9년 5월 12일 11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그만큼 인터넷의 효용과 위력이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하겠다.

모 대기업의 경제연구소가 펴낸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이 유통, 금융, 주식거래, 주택, 경매, 오락, 택배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비즈니스가 제2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신규공개 주식의 상승률 TOP 10은 인터넷 기업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매일경

제신문 5월 13일 15면) ‘제2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경영분석가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전자공동체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20세기가 ‘정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전자문화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시대’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5월 15일 21면)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새 잣대로 자리잡을 것이며 각국이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는 등 ‘사이버 라운드’가 다가온다는 기사도 실려 있다.(한국경제신문 5월 19일 29면)

“이제는 디지털 경영시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정보확산이 값싸고 빨라 기업규모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으며 “향후 25년간은 디지털 시대의 폭발기로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올 것(SONY의 이데이 회장)”이라든지 “경영전략이 출구를 알수 없는 전략적 변환기에 놓여 있다(인텔 앤디 그로브 회장)”라는 세계 우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분석이 게재되어 있다. (동아일보 5월 20일 B3면)

미국의 온라인 은행계좌수는 630만개에 달해 창구거래를 능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시장혁명을 불러오고 있으며 아울러 전자상거래 관련

* 명예회원 : (사)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장
국회의원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장문의 기획기사도 눈에 띈다. (중앙일보 5월21일 9면) 은행거래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온라인 거래가 전통적인 창구거래를 능가하는 것이다.

2000년에는 세계 PC 4억대 이상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사용자가 1억5천만명을 넘어서며, 라디오와 TV가 5천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각각 36년과 13년이 걸렸으나 인터넷은 불과 4년만에 5천만명을 돌파했다는 로버트 데이비스 라이코스 네트워크사 사장의 이야기도 실렸다.(5월 25일 연합통신)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과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화성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터넷의 아버지' 빈트 서프 월드콤 부사장의 재미있는 발표도 있다.(연합통신 5월 25일) 인터넷이 미래 우주시대에도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유리시스템이라는 정보통신 회사를 세계우주의 통신기업인 루슨트 테크놀러지에 매각하여 10억 달러의 현금을 거머쥐었던 김종훈 회장은 현재 인터넷상에는 8억 3000만개 이상의 웹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며, 1분 동안에 500만 개 이상의 E-mail이 오가고 있는 정보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고, 2-3년 안에 일상생활에서 통신혁명을 실감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5월 25일 조선일보 11면) 아직은 일반 대중과 거리가 있는 듯한 정보통신 혁명이 조만간 과거의 전화처럼 보편화, 대중화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올 4월에 인터넷에 쌀가게를 개설한 한 농민은 1999년 올해 수익만 1억 5천만원을 예상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기사도 볼 수 있다. (한국경

제신문 5월 26일 41면)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실례인 것이다.

10-20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인터넷 네트워크 게임에 의사 등 40대 전후의 전문직 '아저씨' 게임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5월 26일 55면) 컴퓨터 게임이 중고등 학생의 불량스런 놀이에서 일반인들의 보편적이고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인텔의 앤디 그로브 회장은 인터넷을 모르는 기업은 5년내에 망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은 최근 약 보름동안 중앙일간지에 실렸던 기사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정보통신 관련기사가 신문 지상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석유제벌 록펠러, 자동차왕 헨리 포드,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모두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거나 현재 최고의 부자인 사람이다. 이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를 대표하는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새 천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새 천년의 모습은 이른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란 대략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이제까지 인간이 수행하던 지적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정보능력을 인류가 갖추게 됨은 물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우리의 의식구조에까지 대변혁이 일어나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구조의 지식정보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산업사회가 고립적 국가경제 체제이면서 획일적, 지역적, 일체적인 사회생활체제이고 중앙집권적 행정 및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였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일국가 경제체제가 붕괴하고 통신망을 통한 신 세계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정보유통, 거래형태, 물류관리 등의 효율화 및 고용구조,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벤처·정보통신기업이 중심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 측면에서는 홈뱅킹, 사이버마켓, 원격진료,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멀티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행정 측면에서는 공공정보공개 및 민원행정의 One-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전자결재, 전자문서, 전자주민증 등 행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국민 편의가 도모될 것이다. 정치 측면에서는 쌍방향 정보망을 통한 민의수렴이 활성화되며 사이버국회, 사이버투표 등 전자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는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와 위성통신기술이 연결되어 개개인이 세계 어디서나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란 단순한 일과성 현상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지식정보사회란 기존의 산업사회가 발전된 새로운 사회형태로서 문명의 한 과정이다.

식량을 찾아 옮겨다니던 수렵사회에서 인간의 육체적 노동으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농경사회로 변화되었고 다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발명되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듯이, 기존의 산업사회 환경과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신해 주는 컴퓨터, 정보기술 그리고 통신망의 발전을 통해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구조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발전과정이며 거대한 문명의 변천과정인 것이다.

또한 지식정보사회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보급을 통한 인간능력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가치혁명인 동시에 정신혁명이기도 하다. 지식정보 사회는 기존의 수직사회, 닫힌 사회, 지역중심 사회, 단절된 사회, 불투명한 사회, 느린 사회로 부터, 네트워크와 정보기기를 통해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개방화, 평등화가 가속되는 수평사회, 개방사회, 세계화된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회, 투명한 사회, 빠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정보사회는 세 문명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싶지 않으면 안하는 소위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도전과 응전”에서 새로운 문명의 도래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민족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민족과 국가는 멸망한다는 것은 지난 세계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류문명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보화문명 도래의 의의와 성격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은 결코 21세기

세계역사속에 당당히 설 수 없을 것이며 결국은 도태되어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바르고 빠른 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열악한 국가경쟁력을 조속히 개선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식정보사회는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것이 한국사회에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경쟁력(스위스 IMD 발표, 1999년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47개국중 38위)을 비롯하여 뒤떨어진 정보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과, 사회 각 층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인 국가경쟁력 순위를 2010년까지 세계 5위로 올리는 것과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를 맞아 과거 정부주도로만 진행되어 왔던 정보화 정책과 운동에 민간,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각계 각층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사단법인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POINTS 2010 운동이다.

POINTS2010은 “2010년까지 한반도의 정보화, 네트워크화, 과학기술화(Peninsular On the Information, Network, Technology & Science)”를 이루자는 정보화 운동으로, 지식정보국가, 정보기술선도국

가, 가상세계중심국가 건설을 그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999년 현재 세계순위 28위인 과학기술경쟁력, 세계순위 22위인 정보화지수, 그리고 세계순위 38위인 국가경쟁력을 2010년 까지 세계 5위로 올리는 것을 추진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천운동으로 1인 1PC, 1인 1홈페이지, 1인 1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고도지식정보사회는 현재의 체제와는 다른 경제사회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에 대비한 범국가사회적 준비와 운동이 필요하며, 정보화운동을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 새마을운동이 당시 시대상황에 맞추어 관주도로 진행되었다면 정보화운동 역시 현재의 시대환경에 맞게 민관산학의 국민 공동체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 호 선

- 인하대 전자공학과(공학사)
-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프랑스 툴루즈 공과대학 전자공학과(공학박사)
-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

- 제15대 국회의원
-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 전국발명단체총연합회장
- (사)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장
- 인하대총동창회회장
- (사)한국노벨상수상지원본부이사장
- (사)한국도농교육정보화추진본부이사장